

개의 기관 파열 1 예

조 준 행*

필자가 수의사면허를 취득한지가 34년째인데 이제까지 기관이 상하로 완전분리 되어 살아 있는 개는 처음이었다.

1989년 5월 6일 토요일 이웃 장안동물병원 정덕기 원장의 소개로 조그마한 치와와 한마리가 숨을 헐떡 몰아세우며 몹시 피로운 상태로 진찰실로 들어왔다.

이 개는 1년생 치와와 순종으로 수컷으로 이름은 뽀뽀, 몸무게는 2.1kg이었다. 성격은 평소에 명랑 쾌활하고 대담하여 이웃 큰개도 이 개의 극성스러운 업포에 못 이기는 척 슬슬 피해주는 상태였으며 주인의 사랑과 귀여움을 독점하고 있었다. 또 이 뽀뽀주인이 부지런하여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는데 이날도 어느날과 같이 산책중 암내를 맡고 흥분되어 있던 옆집 진도전에게 대들다가 순간적으로 온몸을 몇번이나 물려서 그 자리에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것을 옆집 진도전의 주인을 불러 간신히 물고 있는 진도전을 뜯어 말리고 집안으로 쫓은후 곧 병원으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뽀뽀주인이 하는 말이 뽀뽀가 병신이 되어도 좋으니 어떻게 목숨만 구해주면 아주 감사하겠다는 말을 몇번이고 되풀이 하였다. 진찰대에 누운 뽀뽀를 보니 처량하기 한량이 없었다.

초점을 잃은 눈동자와 하얗게 뒤집힌 흰자에

피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는 다만 간헐적으로 헉헉 약하게 숨을 몰아 쉬는 소리가 아직 살아 있다는 표시였다.

몸을 만지면 피하에 공기층이 생겨서 부걱 부걱 소리를 내어 즉시 X-ray 단순촬영을 시도하였던 바, 생각한대로 우측 7, 8번 늑골의 골절과 두꺼운 피하공기층을 알아 낼수가 있었다.

뽀뽀주인 양해하여 수술하기로 했다.

오전 10:00 KM 0.7(IM) A 0.05(IM)

오전 10:14 Som 0.4(IV) 한뒤 진정된후

수술용 이발기로 술부를 깨끗하게 한후 팽대된 부위에 메스를 대었다.

① 경추 4번 부위를 2.5cm 피하를 절개하여 속의 피하직에 쌓인 공기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배출한후 봉합하였다.

② 늑골 7, 8번 부위 교상자국을 종으로 피부 절개후 공기를 배출시키고,

③ 우측 7, 8번 늑골부위 편갑골 바로뒤 중간 지점에 네곳에 교상자국이 있어 3cm정도 절개해보니 흡기시 두군데에서 공기가 유출하여 7, 8번 늑골 골절부위에 Pin method를 하기 위하여 0.2mm 가는 stain pin을 늑골막사이에 삽입하여 골절처치를 하고 0.1mm의 stain사로 교상으로 뚫린 곳을 봉합한후 호기를 기다려 늑골과 늑골사이 근육을 봉합하고 다음에 피부봉합을 하였다.

그리고 만일을 위해서 공기를 빼기 위해 절개된 부위에 멸균가제를 대고 삼인치퍽의 붕대로

* 청운동물병원

몸통을 감고 그 위에 종이 테이프로 다시 감아 붕대가 제 장소에 붙어 있도록 하고 귀가 시켰다.

수술 2일째인 7일 주인의 말에 의하면 뽀뽀가 전혀 잠을 자지 못하고 몹시 피로워 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몸체는 아직도 피하에 팽창된 공기층을 축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공기층에 어제 미쳐 빠져나오지 못한 약간의 공기가 체온의 열로 덥혀져서 팽대된 것으로 인정, 다시 이곳저곳에 작은 구멍을 뚫고 공기를 빼고 어제보다 더 조인 붕대감기를 해서 공기가 발생될 수 없도록 노력하였다.

다음날인 8일 사진에서 동근머리를 볼 수 있어 다시 촬영하여 본 결과 피하에 다량의 공기를 볼 수 있었고 이때만 해도 기관의 이상은 못 발견하였다. 다시 공기가 팽대되어 있는 경부를 촉진하여 가장 심하게 종창된 곳인 기관부위의 털을 잘 깎아내니 교상자리를 발견하고 뽀뽀주인과 상의하여 재수술을하기로 하여 오전 10시 15분 경하부를 정중선에 따라 절개하니 기관의 중심부가

완전 절단된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대단히 놀랐다. 0.8cm 간격으로 절개된 기관을 5호 나이론사로 결찰봉합하고 나니 뽀뽀의 호흡이 아주 부드러워졌다. 다시 근육과 피부를 각각 봉합하고 나니 금새 호흡이 훨씬 부드러워졌으며 피부층의 공기저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9일 뽀뽀가 음식을 먹기 시작했으나 아직 식욕은 왕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호흡곤란이 있었다.

10일 주인의 말에 의하면 수술후 처음으로 잠을 아주 잘 잤으며 식욕도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11일 뽀뽀는 어제보다 신경질적인 치료받는 태도가 많이 부드러워졌으며 몸 움직임도 자유로워졌다.

12일 기관전면을 제외한 부분 발사

14일 기관전면 수술창은 마지막으로 발사한다.

15일 건강한 옛 모습으로 돌아왔음.

이로 인한 뽀뽀주인의 기쁨은 물론 수의사로서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신간안내

「18급들의 축제」

몸으로 쓴 세대만평

윗물이 맑으면 발씻기 좋다
남아일언풍선껌
남녀칠세부동산
가는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
개천에서 모기난다
동백아저씨
가는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
짜가사리 용 진드네
메루치도 생선인가
식당개 3년에 라면을 끓여도

저자 한수약품(주) 상무 옥춘광
신청 393-0647(3,500원)